

Charles Dickens 小説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 研究 — 氣分 및 感情을 中心으로 —

이 유 경 · 김 진 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n Analysis of Clothing Symbolism on Mood and Emotion Described in Charles Dickens' Novels

Yu Kyung Lee and Jin Goo K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Instructor of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4. 興奮	12. 不快, 언짢음
I. 序 論	5. 唐惶	13. 深思熟考
II. 理論的 背景	6. 어색함, 緊張	14. 수줍음
III. 作品에 나타난 服飾象徴性	7. 悲哀	15. 其他
— 氣分 및 感情을 中心으로 —	8. 絶望	IV. 結 論
1. 喜怒哀樂	9. 憂鬱, 憂愁	참고문헌
2. 尊敬	10. 不安	
3. 驚愕	11. 敵意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lothing symbolism of mood and emotion described in master pieces of Charles Dickens(1812~1870), who is a well-known writer of England, and thus tries to clarify symbolic characteristics of clothing woven into all human lives.

The result shows that clothing symbolizes in various ways such mood and emotion as bliss, wrath, friendliness, respect, surprise, excitement, embarrassment, uneasiness, sadness, melancholy, anxiety, hostility, unpleasantness, deliberation, shyness, blessing, gratitude, despair, shame, sympathy, boasting, etc.

I. 序 論

인류는 象徴과 더불어 存在, 發展하여 왔으며 상징은 인간의 삶과 不可分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문화의 起源과 發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象徴行爲의 결과이다¹⁾. 象徴主義란 설명되지 않는 상징들을 사용해서 思想과 感情을 표현하는 예술로써²⁾ 개인의 思想과 感情은 여러 가지 象徴物을 통해 表現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 服飾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 존재해왔다는 普遍性과 그 可視性으로 인해 개인의 내면적 특성인 기분과 感情을 고찰하기에 적합한 象徴物이 된다.

服飾 현상 및 服飾 행동은 다양한 出處와 方法을 통해 研究되어 왔다. 특히 小説은 시대적 배경에 상응하는 사실적이고 정교한 복식묘사로 인해 우수한 研究資料로 인정되고 있다. 즉, 특정 時代를 살아가는 인물들 각각의 특징에 대한 全般적인 묘사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까지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그에 근거하여 服飾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설은 服飾의 象徴性을 考察하기에 바람직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Charles Dickens는 영국의 위대한 小説家이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꾼으로서 時空을 초월한 독자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作家라고 평가된다. 또한 그의 小説에는 각 계층의 다양한 개성과 특징을 가진 普遍的인 인물들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Dickens는 사실주의적 필체로 인해 여러 등장인물들을 생생한 생동력을 갖도록 묘사할 뿐 아니라 그들의 外觀을 주의깊고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³⁾. 특히, Dickens 소설에서는 기분 및 감정 등이 服飾이라는 象徴物을 통해 어느 시대의 어느 작가에 의한 것보다도 탁월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복식 및 복식을 수반한 행동을 통해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적 意味를 파악할 수 있는 바, 그 중 기분 및 감정은 복식이 상징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내재적이며, 중요한 특징인 것이다.

본 研究는 Dickens 小説에 나타나는 전반적 服飾 象徴性에 대한 研究의 一部로서, Dickens 小説을 통해 氣分 및 感情을 中心으로 한 服飾 象徴을 考察하고자 한다. 구체적이고 可視적인 服飾을 통해 나타나는 人間의 가장 內面的이고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氣分 및 感情을 分析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Dickens 소설 중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도가 크다고 평가되는 다섯 작품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켰음을 밝힌다. 즉, Dickens의 初期의 성공작인 「Oliver Twist」(1838), 最高의 단편으로 손꼽히는 「Christmas Carol」(1843), 作家의 자서전적 성격을 강하게 띤 小説인 「David Copperfield」(1849~1850), 이와 더불어 後期의 대표적 小説이라 일컬어지는 「A Tale of Two Cities」(1858)와 「Great Expectations」(1861)이 그것이다. 이 作品 內容을 本文에서 인용할 때는 時代順으로 번호를 사용하여 「Oliver Twist」는 1로 表記하며 「Christmas Carol」은 2로, 그리고 「David Copperfield」, 「A Tale of Two Cities」, 「Great Expectations」는 각각 3, 4, 5로 表記하고자 한다. Text로는 1953년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된 Dickens의 소설 전집인 「The Oxford Illustrated Dickens」를 사용하

1) Leslie A. White, 이문용역, 「문화의 개념」, (서울: 일지사, 1990), pp. 23-24.

2) Charles Chadwick, 박희진역, 「상징주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p. 3.

3) R.W. Stevenson, *David Copperfield: York Notes*,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1980), p. 53.

었다.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번역 출판된 소설속의 表記法을 참고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象徴에 대해 Radcliffe-Brown⁴⁾은 ‘意味를 갖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한다. 상징에는 감정과 무의식적 기원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Mukerjee⁵⁾도 밝힌 바 있다. 인류학자인 Firth⁶⁾는 상징주의 본질을 다른 것을 대신하는 어떤 것에 대한 認知,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추상적인 것까지, 특별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까지의 그들간의 關係라는 정의를 내린다. 뿐만 아니라 Regnier⁷⁾에 의하면 象徴이라는 어휘는 言語 밖에 암시되어 있는 抽象을 具象에 비교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象徴은 모든 時代,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징은 그 意味를 共有하는 집단의 관습에 근거하며 개인적, 주관적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⁸⁾.

White⁹⁾는 ‘人間은 모든 동물중에서도 독특한 동물이다. 모든 種(species) 중에서도 人間만이 象徴力이라는 能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象徴力이란 外界의 사물과 사건들(things and events)에 자유롭게, 그리고 인위적으로 意味를 창조하고, 결정하며, 부여하는 능력이며, 또한 그런 意味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상징행위(symboling)는 사물이나 행위 뿐 아니라 音(언어)이나 색깔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상징행위의 과정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등 여러 가지의 형태를 취한다. 개념, 신앙, 관념, 행동, 의례, 태도, 물건(object)들은 모두 이런 상징행위 과정의 산물이며, 이 상징행위 과정의 산물인 사물과 사건을 象徴物(symbolate)이라 명명할 수 있다¹⁰⁾.

상징행위에 있어서 하나의 행동, 하나의 사물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행동, 사물이지만 그의 意味나 중요성은 그의 본질적인 屬性에 의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脈絡(context)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하나의 행동은 어떤 脈絡에 놓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¹¹⁾. White는 文化의 정의에 있어 Tylor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는 바, 각 文化는 뜻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말,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한 표현되었던 신앙, 그리고 관습, 인습적 태도, 도구, 그릇, 장식품, 의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文化는 상징 행위에 의해 생성되고 영속되어 왔다는 입장이다¹²⁾.

상징화에 의해 文化가 생성되고 지속된다고 하는 White의 주장대로, 文化의 한 요소인 服飾도 象徴을 기본으로 하여 사용되고 전승되는 것이다. Stone¹³⁾은 언어적 象徴에 의해 談話가

4) A.R. Radcliffe-Brown, *A Natural Science of Society*, Srinivas, M.N. (ed.), (Glencoe : Free Press, 1957), p. 138.
5) R. Mukerjee, *The Symbolic Life of Man*. (Bombay : Hind Kitabs Limited, 1959), p. 26.
6) Raymond Firth, *Symbols - Public and private*.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p. 15.
7) Charles Chadwick, 박회진역, 전계서, pp. 2-3.
8) *Encyclopedia Britanica*. (Chicago : Britanica, 1983), p. 900.
9) Leslie A. White, 이문용역, 전계서, pp. 10~13.
10) Leslie White, "The Concept of Culture", *American Anthropologist*, v. 61, April, (1959), pp. 227~251.
11) Leslie White, "Culturolog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3, (New York : The Macmillan Co., 1968) p. 548.
12) Leslie White, 이문용역, 전계서, pp. 23-24.

전달되는 것 같이 대개 제스처, 몸차림, 복식, 장소와 같은 비언어적 象徴을 통해 외모가 전달된다고 주장한다. Kaiser¹⁴⁾도 외모 象徴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지각자에게 전달하고, 또 복식의 象徴은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용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사전달을 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象徴이란 기본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意味를 갖는 대상이며, 특히 服飾 象徴은 여러 다른 인간행위보다 可視的이며 형태가 분명하다. 그러나 服飾 象徴에 부여된 意味는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服飾 象徴이 意味있는 방법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은 그 메시지에 대해 유사한 아이디어를 共有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데캥(Descamps)¹⁵⁾은 '욕구, 취미, 소망, 성격, 인격 등을 의복을 통해 표현하려는 것도 아무런 意味가 없다. 그런 特徵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옷은 없는 것이다. 다만 衣服은 어떤 장르(양식)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淸 앙스 차이를 보일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服飾의 象徴性을 축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服飾은 주로 社會階級, 재산, 職業, 종교, 정치적 의견, 연령, 성별, 특히 최근에는 스포츠를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고 부연설명함으로써, 服飾 象徴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범위를 제한시키면서도 다양한 측면을 표현해 주는 服飾의 特徵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象徴 그 자체에 본질적이고 일관성있는 意味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服飾에 부여된 意味는 개개인의 역할, 배경 및 경험과 사회적인 脈絡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Kaiser¹⁶⁾는 服飾 象徴에 우리가 부여하는 意味는 사회적 認知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적 그리고 상황적 脈絡에서 해석된다고 하였다. 강혜원¹⁷⁾도 의복의 象徴들은 모든 관련된 사회속에서 제한된 가치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服飾의 象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복식은 착용자의 價値, 思考, 經驗 뿐 아니라 사회적 關係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치를 나타내 주는 象徴이다. Roach¹⁸⁾ 등은 기분에 따라 개개인은 다른 종류의 의복, 머리형, 화장을 선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Ryan¹⁹⁾ 역시 복식이 연령, 職業, 지위, 혼인여부, 가치관 뿐 아니라 氣分을 象徴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Dickens도 복식 상징성에 깊이 同意하고 있다. Dickens의 이러한 信念은 '마음의 감동이란 人體의 外部를 통하여 스스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4, 64면)라는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인간 내면의 非可視的인 특징이 服飾과 같은 可視的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복식 상징성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Dickens는 小說 전개에 服飾을 통한 意味傳達方法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의복이나 장신구 그 자체를 복식 상징으로 使用하기도 하고 복식 상태나 복식을 수반한 행동

13) Gregory P. Stone, "Appearance and the Self", Rose, A.M. (ed.),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 (Houghton Mifflin Co., 1962), pp. 86~118.

14) Susan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 14, p. 155, p. 184.

15) Mark-Alain Descamps, 이연숙역, 「유행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1990), pp. 60-61.

16) Susan Kaiser, 전제서, p. 15 & p. 186.

17)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85), p. 56.

18) M.E. Roach & J.B. Eicher, *Visible Self*. (Englewood Clifles: Prentice-Hall, Inc., 1973), p. 181.

19) M.S. Ryan, *Clothing—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p. 14.

및 복식이 착용되는 身體部位를 包括적으로 복식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Farbridge²⁰⁾도 신체의 다양한 부분이 개인의 思考나 意味를 나타내고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며, 상징적 행동은 상징의 일부로써 중요성을 갖는다고 역설한다.

Ⅲ. 作品에 나타난 服飾象徵性 — 氣分 및 感情을 中心으로 —

Dickens의 小說에는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된 氣分 및 感情이 服飾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때로는 동일한 복식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 그 意味가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다. 먼저, 喜怒哀樂의 감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喜怒哀樂

Dickens 作品에는 기쁘고 즐거운 氣分을 象徵하는 服飾이 나타나 있다. 그 예로 노신사인 덕크는 즐거운 놀이를 하는 중에 모자를 벗어 흔들고 털장갑을 낀 손을 좋아라고 미친듯이 두드려 유쾌한 氣分을 나타내고 있다(3, 251면). 또 스크루우지는 幽靈과의 여행에서 자신의 미래에 있는 쓸쓸한 죽음을 미리 경험하고는, 크게 깨달은 바 있어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되어 돌아온다. 환회에 들뜬 그는 옷을 뒤집는다, 거꾸로 입는다, 찢는다, 딴자리로 감춘다 등으로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수선을 피우며, “내 몸은 가뿐해, 천사처럼 즐겁고 유쾌해”라고 외치고 있다(2, 71면). 이와 같이 平常時에는 하지 않는 독특한 복식행동은 바로 유쾌한 氣分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쁨은 이와 같은 경쾌하고 수선스러운 動作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흐르는 눈물을 닦는 行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약혼자와 가족을 버리고 스티어포스와 도망가버린 조카 에밀리를 애타게 찾아온 페고티이는 마침내 버림받고 지친 모습으로 런던에 돌아온 그녀를 집에 데리고 온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있다(3, 725면) 또 오랫동안 데이빗을 만난 페고티이양(3, 307면)은 “우리 도련님!”이라고 외치며 기쁜 나머지 옷소매와 앞치마로 눈물을 닦는다. 이와 같은 손뻐를 치는 등의 경쾌하고 수선스러운 행동이나, 옷소매나 앞치마를 사용하여 흐르는 눈물을 닦는 行動이 기쁨을 象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노나 노여운 기분은 보다 분명하게 복식을 통해 나타난다. 분노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상대방의 上衣 칼라를 움켜잡고 흔드는 것을 들 수 있다. 분노로 인하여 악당 사이크스가 同僚 페이킨(2, 357면)의, 대고모가 비열한 우라이어(3, 758면)의, 그리고 핏이 그의 불성실한 下人(5, 260면)의, 上衣 칼라를 잡아 흔들고 있다. 그 외에 미스 머어드스톤이 대고모의 하녀 자네트르 파라솔로 때린다든지(3, 207면), 상대방의 본넷을 벗겨 팽개친 다음 짓밟는 것(3, 214면)은 분노의 感情이 服飾 行動으로 표현되는 예이다. 또 당나귀 돌보는 소년의 상의를 머리 위로 덮어 씌우는 경우나(3, 207면), 크런처가 자신의 아내에게 장화를 던지는 경우(4, 57면) 등과 같은 격한 行動 역시 분노를 象徵하는 복식행동인 것이

20) Maurice Farbridge, *Studies in Biblical and Semitic Symbolism*. (New York : KTAV Publishing House, Inc., 1970), p. 6.

다.

이처럼 분노의 感情은 상대방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범블의 경우는 자신의 지팡이를 단단히 잡는다든가(1, 24면) 모자를 두 손으로 힘껏 움켜잡는다든가 또는 분노로 인해 흘러내리는 이마의 땀을 닦는(1, 25면) 形態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호하나 비교적 소극적으로 분노를 表示하는 경우와는 달리 격렬한 服飾行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낸시처럼 뉘를 잃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을 쥐어 뜯거나(1, 116면), 핼의 누나처럼 모자를 집어 던지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거나(5, 107면), 또 새러 포킷과 같이 캡을 찢는 것과(5, 229면) 같이 자신의 服飾을 훼손시키는 복식행동과 미코오버처럼 손수건을 가지고 맹렬한 몸짓을 하는 것(3, 711면)도 역시 분노의 感情이 外部로 표출되어 다양한 복식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분노는 상대방의 상의 칼라를 잡아 흔든다든가, 폭행을 가하는 行動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복식을 격렬하게 훼손시키는 行動을 통해서 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격한 분노의 感情은 비교적 쉽게 可觀的으로 복식 및 복식행동으로 表現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복식은 추상적인 감정을 대신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象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경우 着衣 또는 脫衣시 도와주거나 거들어주는 행동은 愛情과 친근함을 상징한다. 즉, 슬취한 데이빗을 침실까지 따라 올라가 脫衣를 도와주는 친구 스티어포스의 行動(3, 336면)과 젖은 데이빗의 코트를 받아주는 페고티(3, 448면)의 행동 그리고 거미지부인이 페고티의 모자를 받아주는 행동(3, 548면) 등은 친근함과 애정의 대리적 표현이다.

객지에 나가있는 딸 마아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돌아오자 클래첼부인은 친절과 愛情이 가득한 마음으로 쇼울을 끌러주고 본넷을 벗겨준다(2, 44면). 下女인 미스 프로스는 外出에서 돌아온 워씨의 본넷을 벗기고 그것을 자기 손수건 모서리로 닦고 먼지를 입으로 불기도 하며, 맨틀은 차곡차곡 개어둔다(4, 96면). 카아튼도 로리의 코오트 입는 것을 도와주는데(4, 289면), 이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친근하고 愛情어린 기분을 象徴하는 것이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는 행위 역시 愛情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스트롱박사의 부인인 애니의 옷을 그녀의 母親이 고쳐주는 태도(3, 245면)나 핼블추우크가 핼의 모자에서 흘러내리는 밴드를 잘 매어주고 외투를 반듯이 퍼주는 것(5, 266면) 등이 그러한 예이다.

트라들스가 미코오버부인의 캡을 연한 갈색의 종이 포장지 속에 넣어 들고 따라가는 行動에서도(3, 411 & 423면) 淑女에 대한 예의뿐 아니라 미코오버부인에 대한 그의 친근함을 볼 수 있다. 친근함과 애정에 기인하는 복식행동은 그 외에도 다양한 形態로 나타난다. 장의사 사우어베리의 어깨를 지팡이로 두드리는 범블의 태도나(1, 23면) 핼의 조끼를 만지작거리는 오오머의 태도(3, 304면), 도오라의 옷을 어루만지는 대고모오 태도(3, 638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류우마치스가 심해 악수도 못하는 바이키스가 핼에게 자신의 나이트캡 꼭대기 술에라도 악수해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도(3, 308면) 핼에 대한 바이키스의 절대적 愛情과 好意의 표현이다. 그 밖에도 핼을 초대한 웨믹이 아침식사時 上衣를 벗고 셔츠차림으로 있는 것은 실내 분위기를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웨믹의 자상한 배려일 뿐 아니라(5, 351면), 둘 사이의 친밀함을 表現하는 行動이기도 하다. 울고 있는 친구에게 자기의 쇼울을 덮어주면서 위로해주는 女人(5, 156면)의 모습에서도 친근함과 愛情을 볼 수 있다.

보다 자극한 愛情과 關心을 象徴하는 경우로는, 火災로 산산조각이 되어가는 미스헤비삼의

웨딩드레스의 헌 조각을 꿰매어주는 그녀의 養女 에스텔리(5, 292면)를 들 수 있다. 또 데이빗을 자신의 쇼울에다 바싹 대어 겨안는 그의 母親(3, 18면)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에밀리를 자신의 옷에다 재빠르게 휩싸가지고 구출해 내는 마아사(3, 729면)의 行動도 극진한 愛情의 表現이다. 특히 服飾중 불결한 品目으로 간주되는 신발을 난로에 녹이고 있는 賢淑하고 인정한 그의 아내의 태도나(3, 847면)의 꺾의 구두를 닦아주는 웨딕의 태도(5, 198면)가 그러한 예이다. 손수건을 찢어서 꺾의 붓대를 만들어 주는 허버트(5, 408면)에게서는 친구간의 友情 및 關心의 보다 분명한 表現을 볼 수 있다.

이처럼 着衣 및 脫衣時 도와주거나 옷대무새를 가다듬어 주는 행동을 통해 친근, 好意, 愛情을 볼 수 있으며, 산산조각이 난 의복을 꿰매주거나 가장 不潔한 복식 品目으로 간주되는 신발을 관리해 주는 행동은 더욱 지극한 愛情의 表現이다. 이 모든 것은 感情의 특성상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인 것을 또한 주목할만하다. 比可觀의이고 人間의 내면 깊숙히 內在되어 있는 喜怒哀樂의 감정이 이와 같이 복식을 통해서 상징되어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 尊 敬

존경심을 갖는 감정상태를 복식이 象徵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스트롱 박사의 학덕과 人品을 존경하는 그의 아내는 박사의 발밑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주 즐거운 얼굴로 민첩하게 박사에게 구두를 신기고 각반을 쳐주고 있다(3, 103 & 526면). 역시 박사의 지혜와 學識에 대해 존경심을 갖는 덕크도 그 존경심을 모자를 벗어드는 행동으로 표시한다(3, 252면). 모자를 벗어들이 존경심을 표시하는 예는 그 외에도 더 볼 수 있다. 데이빗의 대고모를 대단히 존경하는 페고티아가 대고모를 만날 때마다 모자를 벗어드는 경우과(3, 724면) 제이거스를 존경하는 한 고객이 모자를 벗으며 그에게 말을 시작하는(5, 157면) 경우가 그것이다. 제이거스의 또 다른 고객인 한 유대인은 ‘존경하는 미스터 제이거스-’라고 부르며 그의 上衣 자락에 몇 번이나 입을 맞추는 행동(5, 157면)을 통해 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혁명주체 세력의 一部가 마담 더할저를 향해 일제히 모자를 벗어 세번 휘두르는 모습(4, 38면)은 그들의 존경심과 충성심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무릎을 꿇거나 모자를 벗거나 또는 상대방의 上衣 자락에 입맞추는 행위와 같은 열렬한 존경심의 표현도 볼 수 있으나, 儀禮的이고 慣習的인 敬意를 표현하기 위한 복식행동도 볼 수 있다. 下人이 主人 및 그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한 예로, 스티어포스 집에 머무는 데이빗에게 下人인 리티머는 아침 일찍 그 방에 대기해 장화를 가지런히 놓고, 상의를 들고 마치 갓난에 모시듯 내려서 입으로 먼지를 불고 있다(3, 300면). 또, 데이빗에게 驛집꾼은 조그만 단장을 모자에 대어 인사함으로(3, 365면)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敬意를 표시한다.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 역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敬意가 그 바탕이 되고 있다. 감옥내에서 열리는 서명 날인식에 죄수인 흠킨스 대위가 몸을 깨끗이 닦고 참석하는 경우나(3, 168면) 미스 헤비삼의 건갈을 받은 조가 깨끗이 씻고 그녀를 방문하는(5, 211면) 경우가 그 예로써, 敬意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도 찾아볼 수 있다. 데이빗은 역마차 정거장에서 좌석표를 살 때에 ‘마부석’이라고 기입된 표를 사서는 그 유별나게 눈에 띄는 특등석에 특히 敬意를 표하기 위해, 외투(great coat)와 쇼울을 차려 입으며 그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3, 284면). 특정한 대상에 대한 敬意가 복식을 차려입는 行爲로 표현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각반 및 신발을 착용시키거나 모자를 벗는 行動 등으로 존경을 표현하기도 하고, 단장을 모자에 대어 인사하거나 신체 및 옷매무새를 단정하고 정결하게 하는 行動으로 敬意를 나타내기도 한다.

3. 驚愕

노아의 고향소리에 깜짝 놀란 교구위원 범블이 평상시 權威의 象徵으로 여기는 정장용 삼각모자를 쓰는 것도 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나오는 行動(1, 44면)은 경악스러운 상태의 복식 행동을 여실히 보여준다. 스펀로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무실 서기들은 모자조차 걸어 놓지않고 뉘를 잃고 앉아 있다(3, 555면). 또 지극한 애정으로 보살펴온 조카 에밀리가 스티어포스와 도주한 사실을 안 아저씨 페고티이는 조끼 앞가슴을 풀어 헤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과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이다(3, 452면). 이것 역시 경악의 感情 상태를 나타내는 복식 행동이다. 이처럼 놀라고 충격적인 心的 상태는 온전하지 못한 복식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상적인 복식 행동이나 복식에 대한 全般의인 社會規範에서 벗어나 있으나 그러한 事實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착용자가 경악의 상태에 있음을 象徵하는 것이다.

4. 興奮

흥분 상태의 복식 行動으로는 에밀리와 스티어포스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로사 다아들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모자도 안쓰고 땀수와도 같이 잔디밭 한쪽의 자갈길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3, 521면). 또 權威의 象徵인 정장용 삼각 모자를 틀린 방향으로 쓰는 범블(1, 34면)이나, 너무나 흥분하여 손수건을 꺼내 얼굴과 목, 손을 닦는 매그위치(5, 333면) 등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데이빗의 어린 時節 下女 페고티이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조금이라도 힘을 줄 때에는 언제나 가운(gown)의 단추가 등뒤에서 몇 개씩 떨어지곤 한다(3, 17 & 20면). 데이빗이 義父에게 반항한 죄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로 홀로 떠나갈 때, 데이빗이 탄 마차에 뛰어 올라와 그를 두 팔로 껴안았을 때에도 단추가 일시에 폭발했던 것이다(3, 63면). 본시 비만형이기도 하지만 기쁨이나 슬픔으로 인해 흥분된 狀態이기 때문이다. 흥분도 역시 올바르게 못한 服飾行動으로 나타나지만 격렬한 行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경악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類似한 복식 행동이 놓여진 맥락에 따라 경악을 상징하기도 하고 흥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唐惶

服飾行動은 당황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샬롯과 노아가 情談을 나누는 장소에 범블이 들어닥치자 당황한 샬롯은 얼른 앞치마로 얼굴을 가린다(1, 201면). 유순한 데이빗 母親의 예기치 못한 반발로 당황한 미스 머어드스톤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에다 갖다대어(3, 50면) 그에 대처하기 위한 方法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벌고자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땀의 주장에 당황한 제이거스도 손수건을 꺼내어 平常時와 같이 거만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코를 푸는 대신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행동 역시 당황스러움과 순간적인 혼란을

나타낸다.

또한 프랑스 革命 당시 사위 다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닥터 마네터는 革命세력의 잔인한 처형장면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게 된다. 이에 그는 모자도 안쓰고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4, 246면). 그 후 석방되었던 사위 다네가 재수감되었다는 소식에 당황하고 긴장한 마네터 박사는 자신의 털 셔츠 앞자락을 지긋이 잡고 있다(4, 272면). 당황스러운 感情 狀態가 복식으로 身體의 一部를 가리거나, 순간적으로 平常時와는 다른 복식행동을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는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6. 어색함, 緊張

어색하고 긴장된 기분이 복식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미스 헤비삼을 방문한 대장장이 조는 헤비삼의 養女이며 아름다운 숙녀인 에스텔러가 문을 열어주자 어색하고 긴장하여 자기 모자를 벗어 양손으로 붙들고 모자테를 재고 있다(5, 93면) 자신과는 달리 신사가 된 꺾을 런던으로 찾아온 조는 역시 모자를 들고(걸지 않고) 선채로 거북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5, 207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복식행동이다. 또, 올리버를 인수받기 위해 지불액을 협상하는 갠필드(Gamfield)씨가 자신의 모자를 손으로 비트는 행동(1, 17면)에서나, 셀리노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불가에 앉아 코니부인을 기다리는 범블의 상의자락을 팔아래로 모으는 행동(1, 196면)에서도 긴장된 기분으로 인한 복식행동을 볼 수 있다. 즉, 平常時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자연스럽고 한 가지 服飾 品目에 집착하는 행동은 어색함과 긴장을 象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悲哀

손수건을 눈에 대거나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 모습은 대개 悲哀를 象徵한다. 디크, 페고티이양, 미스 모오쳐, 거미지 부인 등의 여러 登場人物이 그들의 손수건을 눈에 댄으로써 悲哀 및 슬픔을 표현한다. 흠뻑 젖어버린 데이빗의 손수건(3, 63면)을 통해서도 義父 및 그 누이에 의해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나야 하는 어린 데이빗의 진한 슬픔이 배어 나온다. 이러한 행동은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으로써, 맥락에 따라 그 意味가 달라지는 것을 여실히 立證하고 있다. 손수건 대용으로 상의 소매나, 잠옷, 쇼울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묘사되어 있다.

8. 絶 望

Dickens의 소설에는 絶望을 나타내는 복식행동도 여러 군데 나타나 있다. 페고티이가 타고 떠나가는 마차를 따라 달려가다 지쳐 商店 문턱에 걸터 앉아있는 거미지부인은, 한쪽 구두는 벗겨져서 먼 포도위에 나자빠져 있고 모자는 형편없이 되어버린(3, 466면) 絶望的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 프랑스 혁명시 감옥의 창구명에 몸을 기대어 서있는 검정옷의 부인 역시(4, 241면) 절망적인 기분을 가득안은 상태이다. 또 身分과 교육수준이 높아진 꺾이 매형인 조의 태도와 이야기에 너무나도 슬프고 絶望하여, 소리지르며 조의 상의를 붙잡고 있는 모습도 나타난다(5, 104면) 絶望은 이와 같이 다양한 복식 및 복식행동 등으로 상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9. 憂鬱, 憂愁

미코오버는 심각한 우수 속에 빠져들게 되자 모자를 무섭게 한쪽으로 짓눌러 쓰고 셔츠 칼라를 눈까지 치켜 세우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함으로써 그의 우울감을 더 한층 두드러져 보이게 하고 있다(3, 708면). 남편의 투옥으로 침울한 뉘씨의 喪服같은 검정색의 수수한 옷차림(4, 257면)에서도 그녀의 우울한 氣分을 볼 수 있다. 자신을 싫어하는 義父 및 그 누이와 만나는 것을 피해 자신의 을씨년스러운 침실에서 조그만 外套에 몸을 감싸고 혼자 讀書에 열중하는 少年 데이빗의 모습(3, 117~118면)에서는 그의 절절한 孤獨感과 疏外感을 읽을 수 있다. 우울 및 憂愁는 복식으로 신체를 감싸거나 검정색과 같은 어두운 색의 服飾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0. 不安

不安과 근심 역시 복식행동을 통해 배어 나온다. 우울한 소식에 접한 어린 핏이 조끼에 달린 하나뿐인 단추를 손으로 계속 돌리며 걱정에 잠겨있다(5, 7면). 아무런 意味없이 무심코 계속 단추를 돌리고 있는 모습은 不安한 마음의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단추를 돌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자신의 옷에 주름을 잡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대고모는 나이트 캡의 가장자리에 손가락으로 주름을 잡으며 방안을 왔다갔다 한다(3, 502면). 장래의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몹시 不安定한 상태인 것이다. 미스 헤비삼에 대해 거짓말을 둘러댄 핏은 불안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다리의 바지 주름을 잡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5, 64면).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마담 디할저에게 맹종하고 있는 나무장수는 동료들 앞에서 뉘씨에 대해 증언할 目的으로 증언대로 나오며 한 손으로는 붉은 모자를 만지작거리고 있다(4, 333면). 革命의 不安한 상황이 나무장수에게도 과급되어 그 감당할 수 없는 不安한 마음이 붉은 모자를 만지작거리는 態度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싫어하는 고용주의 아내, 개저리부인을 습격하여 重態에 빠뜨린 오울릭 역시 不安하고 근심스러운 기분을 가눌 수가 없어 손을 주머니 속에 깊숙히 꽂고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111면).

不安하도 근심스러운 氣分은 복식을 수반한 손동작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복식에 의존하는 形態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빈원에서 장의사의 고용원으로 옮겨가는 올리버는 장래에 대한 不安感으로 인해, 자신을 데리고 가는 범블의 상의 커프스에 자신을 밀착시켜(1, 26면) 不安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輕減시키고자 한다. 마아사는 풍유병 환자처럼 안절부절한 態度로, 두 손을 자신의 쇼울 속에 과몰고 있으며, (3, 680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不安感으로 페이지를 다 떨어진 담요로 몸을 감싸고 앉아 있다(1, 356면). 또한 良心의 가책으로 몹시 不安해진 낸시는 추워서 벌벌 떨며 쇼울을 잡아당겨 몸을 감싸고 있다(1, 146면). 올리버를 데리고 마차에 탄 후에도 커튼을 재빨리 침으로써(1, 148면) 不安한 心理狀態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즉, 身體의 一部를 복식에 대거나 또는 쇼울이나 담요로 身體를 덮어감싸는 행동을 통해 不安한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다. 텔슨 은행의 수위이면서 밤에 몰래 무덤을 도굴하는 크런치는 목덜미와 턱을 감싼 목도리와 눈위까지 깊게 눌러쓴 모자차림이다. 한잔 술을 마시려고 걸음을 멈출 때마다, 왼손으로 그 목도리를 벗기고 오른손으로 술을 들이키고 나서는 얼른 다시 목도리를 여밀만큼(4, 19면) 不安한 狀態인 것이다. 이

것은 복식에 의지하여 安定感을 얻으며, 복식으로 자신의 不安感을 감추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不安하고 초조한 기분은 다른 사람에 대한 복식행동을 통해 象徵되기도 한다. 대고모는 초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하녀 페고티의 조카인 함의 옷깃을 붙잡고 흔들며 대고 머리를 잡아채어 그의 린넨셔츠와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3, 11면).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不安과 근심은 자신의 服飾과 관련된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대고모와 같이 他人을 향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근심과 不安은 服飾을 수반한 意味없는 行動을 반복하거나, 마음에 위로를 얻거나 안정을 되찾고자 복식에 의존하는 모습, 그리고 얼굴을 비롯한 身體의 一部를 가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드물게는 상대방에 대한 복식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11. 敵意

데이빗이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땀장이가 데이빗의 셔츠 가슴팍을 움켜 잡는 모습(3, 187면)에서는 그의 불특정다수에 대한 敵意를 볼 수 있다. 미스 다아틀이 에밀리에 대해 갖는 敵意도 볼 수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티어포오스를 유혹하여 함께 도망친 후, 혼자가 되어 돌아온 에밀리에게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에밀리의 호소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자신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에밀리의 손을 뿌리침으로써(3, 720면) 경멸과 敵意의 感情을 나타낸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敵意를 表現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복식행동을 통해 敵意를 드러내기도 한다. 즉, 자신의 손수건을 이로 물기도 하고 씹기도 하는 우라이어의 行動은(3, 755면) 굴욕감과 모욕감 그리고 그로 인한 敵意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미천한 身分에서 갑자기 신사가 되어 돌아온 핼을 읍내에서 만난 읍내 商店의 종업원은 갑자기 길에 나뭇그라져 모자가 벗겨져 나가고, 자기 셔츠 칼라를 잡아 뜯고 옆구리를 비비핌으로써(5, 232면) 핼을 조롱하고 그에게 모욕을 주고 싶은 敵意를 한껏 表現한다. 이와 같이 敵意는 상대방의 가슴팍을 움켜잡거나 옷을 잡는 손을 뿌리치는 행동을 비롯한 격한 복식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2. 不快, 언짢음

不快함이나 언짢음을 상징하는 복식행동으로는, 꺾꺾한 자세로 자기 드레스의 주름을 펴는 대고모(3, 780면)의 行動을 들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제이거스는 不快한 氣分을 목수건의 한 쪽 끝을 씹는다든가(5, 301~302면), 코트자락을 잡아 울리다든가(5, 317면) 또는 상의 자락 밑에 뒷집을 지고 찌푸린 채 자신의 장화를 내려다 본다든가 하는(5, 274면) 行動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핼과 드러몰(5, 337면)은 에스텔러를 사이에 두고 있는 戀敵으로, 난로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 자신의 장화를 내려다보고 있다. 서로에 대한 不快하고 경쟁적인 氣分 및 感情이 이러한 복식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식하기 그지없는 스크루지가 외투의 단추를 턱까지 채우는 것도 크리스마스에 자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訪問한 신사들에 대한 不快感의 表現인 것이다. 평소와는 다른 생소하고 경직된 복식행동을 격한 동작없이 행하는 모습은 不快感을 象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3. 深思熟考

심사숙고하는 사려깊은 感情狀態를 象徵하는 복식행동으로는 두 손을 혁대 손에 쑤셔넣는 스트라이버(4, 86면)와 팔짱을 끼고자 자신의 셔츠 소매를 꼬집는 웨믹(5, 351면), 그리고 셔츠 칼라를 가지런히 여미는 미코오버(3, 419면)를 들 수 있다. 또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도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Dickens의 小説에서도 “스크루우지는 무슨 생각을 할 때면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넣는 버릇이 있었다.”(2, 20면)라는 表現이나 “로즈번 선생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른채, 방안을 오락가락 거닐면서 생각에 잠겼다.”(1, 217면)라는 表現에서 잘 볼 수 있다. 찰도 자신의 未來와 財産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는다.(5, 238면) 브라운로는 잠옷의 자락 뒤에 자신의 손을 넣고 안경을 이마에 올리지 않은채 오랫동안 올리버를 찬찬히 뜯어보며 무언가 생각하고 있다(1, 80면). 이것 역시 심사숙고하고자 하는 氣分을 服飾이 象徵하고 있는 예인 것이다. 그러므로 심사숙고하는 태도는 혁대 속이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4. 수줍음

馬夫 바야키스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해들은 페고티이양은 웃으며 앞치마로 얼굴을 가린다(3, 110면). 또 미니이의 어린 딸은 큰 소리를 지르며 엄마의 치마에 얼굴을 파묻는다(3, 303면). 이러한 복식 행동은 부끄러움, 수줍음의 象徵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을 띤 바야키스가 뒤통수에 모자를 얹은 모습(3, 138면)이라든가, 데이빗을 學校로 찾아온 페고티이씨가 목수건 양끝을 가슴에 쑤셔넣으며 말하고 있는 모습(3, 105면) 등에서도 수줍고 어색함이 服飾 行動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服飾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엉뚱한 동작을 취하는 것은 수줍음의 表現인 것이다.

15. 其他

그 외에도 Dickens 소설에 나타난 복식은 祝福을 象徵하기도 한다. 結婚式을 위해 집은 나서는 바야키스와 페고티이양의 등뒤에서 흰 구두 한 짝씩을 던지는 行動이 그것이다(3, 145면). 그리고 찰이 고향을 떠나 런던의 보호자에게 갈 때 찰의 등뒤에서 조와 비디가 각각 한 짝의 흰 구두를 던지는 行動(5, 151면)도 마찬가지로 祝福과 幸運을 기원하는 마음이 外部로 표현된 것이다. 동정심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말없이 덜덜 떨고 있는 마아사에게 페고티이가 땅에 떨어진 그녀의 쇼울을 집어들어 정성스레 어깨에 돌려주는 것이나(3, 684면) 스트롱박사가 어느 추운 날 여자 거지에게 자신의 각반을 벗어주는(3, 238면) 복식행동으로 象徵된다.

도오라가 귀걸이의 소리가 짹짹 짹 짹 때까지 고개를 짓는 행동(3, 696면)이나 스트롱 박사의 장모 마이클람 부인이 고개와 부채를 동시에 흔드는 것은(3, 279면) 강한 否定的 感情을 상징한다. 또한 도로수선부가 답답한 기분에 자신의 푸른 모자로 부채질을 하거나(4, 164면) 가슴을 치고 있는(4, 123면) 모습도 볼 수 있다. 폭풍우 소리에 에이프런으로 양쪽 귀를 막는 행동(3, 790면)은 두려움과 공포감의 象徵이다. “어서 모자를 벗고 이 어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라는 브라운로 선생의 간절한 요청에 화를 잘 내는 노신사 그림웍은 장갑을 벗으면서(1, 98면) 도둑으로 몰린 올리버와 첫 對面을 한다. 그림웍은 마음을 바꿔 관심을 갖

고 對話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수반되는 복식행동이 모자와 장갑을 벗는 것이다. 모자와 장갑을 벗음으로써 마음이 열리게 되고 관심이 생기며 意味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스크루우지가 幽靈에게 자신의 새 모습을 보아달라고 애원할 때(3, 70면) 유령의 옷자락을 짝 움켜쥐고 있는 모습은 간절하고 애원하는 마음의 象徵인 것이다. 피로움은 낸시와 같이 머리를 산발한 채 탁자에 엎드려 있는 모습(1, 188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결국 낸시가 사이크스의 손에 죽게될 때, 그녀는 로즈 메일리가 준 하얀 손수건을 가슴에서 꺼내 합장한 두 손에 들고 기력이 허락하는 대로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든 후 創造主에게 마지막 자비를 구한다(1, 362면). 속죄하는 氣分이 손수건을 높이 드는 行動으로 옮겨진 것이다.

감사를 象徵하는 복식행동에 대한 예로는, 謝意를 표하기 위해 모자를 손에 대어 인사하는 下人 리터머(3, 324면)의 모습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비천한 女人 마아샤는 영영 소리내어 울며 쇼올로 얼굴을 가리더니 쇼올에 얼굴을 파묻고 슬프고 비참한 신음 소리를 내며 페고티야양의 집에서 나가버린다(3, 339면). 수치스럽고 비참한 氣分을 가눌 수 없는 心的 상태가 쇼올에 얼굴을 파묻는 행동으로 나타난 예이다.

以上과 같이, Dickens의 小說에 묘사된 복식이 상징하는 氣分 및 感情은 喜怒哀樂, 존경, 경악, 흐이분, 당황, 긴장, 悲哀, 절망, 우울, 불안, 敵意, 불쾌, 심사숙고, 수줍음, 축복, 동정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착용자의 服飾 및 복식 행동으로 대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立證할 수 있었다. 복식을 통해서나 복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氣分 및 感情의 종류에 대한 분류와 분석은, 지금까지의 선행 研究에서는 관심도가 낮은 것이다. 또한 동일한 복식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 그 意味 및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結 論

지금까지 Dickens 소설에 나타난 服飾 象徵을 考察해본 結果, 服飾 및 服飾 行動은 氣分이나 感情을 나타내는 훌륭한 象徵物(symbolate)이 됨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설명되지 않는 象徵들을 사용해서 思想과 感情을 표현하는 것이 象徵主義라고 한 Chadwick의 주장을 支持하는 것으로, 즉 服飾 또는 복식 행동이라고 하는 象徵物을 사용해서 개인의 氣分이나 感情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象徵物로는 비단 服飾 그 자체 뿐 아니라 服飾을 수반하는 태도 및 행동 등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象徵物을 물질적 對象, 觀念과 태도, 공공연한 행동 등으로 분류한 White의 理論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寫實主義的 묘사로 유명한 Dickens의 탁월한 표현력과 함께, 그의 服飾에 대한 깊은 理解와 洞察力을 볼 수 있다.

Dickens 소설에 나타난 服飾 象徵은 White가 지적한대로 어떠한 脈絡에 놓이는가에 따라 解釋이 달라지기도 한다. 즉, 동일한 복식이나 복식행동이라도 그것이 나타나는 全般的 脈絡에 따라 전혀 다른 意味를 象徵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눈물을 닦는 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Dickens 소설에서 슬픔을 象徵하기도 하고 기쁨을 象徵하기도 한다. 따라서, 服飾은 人類 社會에서 인간의 氣分, 感情을 비롯한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文化의 한 部分인 服飾은 상징행위의 결과로 전승되고

발전되며 그 意味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氣分이란 일정한 기간 지속되는 感情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Dickens 소설에서 복식을 통해 그 象徵性을 볼 수 있는 범주로는 喜怒哀樂, 존경, 경악, 흥분, 당황, 긴장, 悲哀, 절망, 우울, 불안, 敵意, 불쾌, 심사숙고, 수줍음, 축복, 동정 등을 들 수 있다. 각 범주는 특징적인 服飾 및 복식 행동으로 나타나며, 특히 복식은 그 특유의 可視的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쉽게 分析될 수 있는 것이다.

喜怒哀樂 중 喜樂은 경쾌하고 수선스러운 행동이나, 웃소매나 앞치마로 눈물을 닦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Dickens 소설에서 분노나 노여움은 보다 분명하게 복식에 나타나는 바, 상대방의 上衣 칼라를 잡아흔든다거나, 모자 등을 벗겨 팽개치고 짓밟는다거나, 衣服을 집어던지는 것이 그것이다. 또 자신의 服飾을 격렬하게 훼손시키는 行動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많은 경우 着衣 또는 脫衣시 도와주거나 거들어 주는 복식행동은 친근함과 애정을 상징한다. 불결한 품목으로 간주되는 신발을 관리해주거나 室內에서 上衣를 벗고 셔츠차림으로 있는 것 역시 愛情과 好意를 나타낸다. 무릎을 꿇고 옷시중을 드는 행동이나 모자를 벗어드는 행동 또는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행동 등은 상대방에 대한 尊敬心을 상징하는 것이며, 신체 및 옷매무새를 청결하고 단정하게 하는 행동도 敬意를 意味하는 것이다.

日常적인 복식행동이나 전반적인 服飾規範을 벗어나 온전하지 못한 복식행동을 보이거나 그러한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驚愕의 感情狀態를 상징한다. 흥분도 역시 울바르지 못한 복식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격렬한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경악과 구별된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동일한 복식 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식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순간적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복식행동을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는 것은 당황을 상징하는 것이다. 부자연스럽거나 한 가지 복식 품목에 집착하는 행동은 어색함과 긴장을 나타낸다.

登場人物이 손수건이나 소매자락을 눈에 대는 행동은 悲哀의 表現方法임을 알 수 있다. 정반대의 감정인 기쁨을 상징하는 복식행동과 동일한 것으로, 맥락에 따라 의미 및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우울함은 우스꽝스러운 복식행동을 하건, 김정색의 수수한 옷차림을 하거나, 외투로 몸을 감싸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相反되는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심과 不安은 服飾을 수반한 意味없는 行動을 반복하거나, 마음에 위로를 얻거나 안정을 되찾고자 복식에 의존하는 모습, 그리고 身體의 一部를 감싸고 가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드물게는 상대방에 대한 복식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곳곳한 자세로 복식의 주름을 펴는 행동이나 목수건의 한쪽 끝을 씹는 행동, 그리고 복식의 한 부분만을 응시하는 행동같이 경직된 복식행동을 격한 동작없이 행하는 것은 불쾌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심사숙고함은 팔짱을 끼거나 셔츠 칼라를 가지런히 여미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으로 표현되며, 또한 幸運을 祈願하고 祝福하는 것은 떠나는 사람 등뒤에서 흰 구두 한짝씩을 던지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귀걸이가 딸랑거릴 정도로 고개를 흔들든가 부채 등을 흔드는 것은 강한 否定의 感情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Dickens 小說에 나타난 복식 및 복식 행동은 적의, 謝意, 절망, 수치, 虛勢 등의 氣分 및 感情을 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추상적이고 무의식적인 人間 內面의 심리적 측면인 其分 및 感情이 복식이라는 구체적이고 可視的인 대상을 통해 象徵되고 있음을 考察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Radcliffe-Brown, A. R. *A Natural Science of Society*, Srinivas, M. N.(ed.), Glencoe : Free Press, 1957.
2. Chadwick, Charles. 박희진역, 「상징주의」,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3. *Emyclopedia Britannica*, Chicago : Britanica, 1983.
4. Stone, Gregory P. "Appearance and the Self", Rose, A. M. (ed.), *Hun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 Houghton Mifflin Co., 1962.
5. White, Leslie A. 이문응역, 「문화의 개념」, 서울 : 일지사, 1990.
6. White, Leslie A. "The Concept of Culture", *American Anthropologist*, v. 61, April, 1959, pp. 227-251.
7. White, Leslie A. "Culturolog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3, New York : The Macmillan Co., 1968, pp. 549-551.
8. Descamps, Mark-Alain. 이연숙 역, 「유행심리」, 서울 : 동국출판사, 1990.
9. Farbridge, Maurice. *Studies in Biblical and Semitic Symbolism*, New York : KTAV Publishing House, Inc., 1970.
10. Roach, M. E. & Eicher, J. B. *Visible Self*, Englewood Cliffes : Prentice-Hall, Inc., 1973.
11. Ryan, M. S. *Clothing-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12. Firth, Raymond. *Symbols-public and private*, Ic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13. Mukerjee, R. *The Symbolic Life of Man*, Bombay : Hind Kitabs Limited, 1959.
14. Stevenson, R. W. *David Copperfield; York Notes*, London : Longman Group Limited, 1980.
15. Kaiser, Susan.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16.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 교문사, 1985.